



국립한국문학관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 학술대회 개최 - 한국문학의 보물들, 맛보고 즐기고 감탄하다!

국립한국문학관(관장 문정희)이 대표적 소장자료의 가치를 연구하는 학술대회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을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2024년 12월 1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국립한국문학관이 엄선한 대표 소장자료의 가치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하고 미래의 한국문학사 논의를 위한 단초를 얻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고전의 현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작가대담도 관심을 끈다.

고전은 어떻게 현재의 문학으로 재창조되는가

- 전기화, 김탁환, 강화길 작가대담으로 살펴본 고전의 현재적 가치

학술적 논의에 앞서 고전을 문학사적 사료로서만이 아니라 현재적 창작의 원천으로 살펴보기 위해 작가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전기화 문학평론가가 대담을 이끌고, 김탁환 소설가와 강화길 소설가가 고전으로부터 얻은 문학적 영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해석과 스타일을 가미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 과정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탁환 소설가는 ‘소설 조선왕조 실록’ 시리즈를 통해 일찍부터 고전에 바탕한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준 작가이다. 특히 『대소설의 시대』는 조선후기 여성장편소설의 창작과 향유 과정을 배경으로 삼아 문학과 대중, 그리고 시대에 관한 흥미진진한 서사를 펼친 바 있다. 강화길 작가는 동서양의 고전을 자신의 문학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준 작가이다. 『대불호텔의 유령』에서는 고전소설인 ‘장화홍련전’이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한다. 작가대담을 통해 한국문학의 전통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거듭 새롭게 창작되는 과정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10만 점 소장자료 중 문헌적·문학사적 가치 뛰어난 자료 엄선

- 『삼국유사』, 『담정총서』, 『임화정연기봉』의 문학사적 가치 재조명

1부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이 소장한 자료 중 문헌적, 문학사적 의의가 큰 대표자료의 가치를 조명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일연, 1512년, 국보동일판본), 『담정총서(潭庭叢書)』(김려, 정조순조 연간, 유일본), 『임화정연기봉(林花鄭延奇逢)』(미상, 19세기, 유일본)이 대상이다. 모두 유일본 혹은 희귀본이며 한국문학사에서 이전의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도 높다. 13세기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는 단군신화를 비롯하여 신라 향가 14수, 다양한 설화를 수록하고 있어 한국문학의 보물창고와도 같은 자료이다. 『담정총서』는 조선 후기 김려가 그와 문학적 성향을 같이 했던 문우들의 글을 모아 엮은 자료로 유일본이다. 김려를 비롯한 ‘담정그룹’은 고문의 가치를 중시했던 정조의 정책에 반한 글쓰기로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민중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함으로써 ‘근대를 선취한 작품’으로 남았다. 『임화정연기봉』은 조선 후기 여성들에 의해 쓰여지고 인기리에 향유되었던 장편소설의 실재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총 72권에 달하는 분량의 정서한 필사본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이 소장한 자료가 유일본이다. ▲하일식(연세대), ▲안대회(성균관대), ▲김동욱(계명대) 교수의 발표, ▲표정옥(숙명여대), ▲정우봉(고려대), ▲정혜경(강남대) 교수의 토론으로 이 자료들의 가치가 더욱 정밀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근대문학의 생생한 현장 기록, 육필원고

- 최승구, 이광수, 이상의 육필원고의 정밀한 실증과 문학사적 가치 조명

2부에서는 근대 문인 최승구, 이광수, 이상의 육필원고를 대상으로 근대문학 창작의 생생한 현장을 엿볼 수 있다. 일찍이 천재로 불리웠으나 요절로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최승구의 육필원고는 우리 문학이 전통을 기반으로 치열한 고민을 통해 근대문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광수의 『삼봉이네 집』 육필원고는 식민지 시기 검열과 작가의 창작의도가 길항하면서 굴절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국립한국문학관이 그 존

재를 공개한 바 있는 이상의 ‘일문유고’ 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세부적 검증을 통해 저자를 확정한다. 이로써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이상의 친필이 대거 문학적 자료로 기록될 수 있게 되었다. ▲정우택(성균관대), ▲ 최주한(서강대), ▲김주현(경북대) 교수의 발표, ▲최현식(인하대), ▲장문석(경희대), ▲송민호(홍익대) 교수의 토론을 통해 근대 문인 육필원고의 가치와 수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정희 관장, 끊임없이 새로 보고 새로 씀으로써 전통은 미래유산이 될 것

문정희 관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통의 보존이 곧 새로운 창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한국문학유산의 ‘미래가치’ 에 주목하고자 했다. ‘미래가치’ 는 끊임없이 새로 보고, 새로 씀으로써 성취된다” 며 학술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앞으로도 한국문학유산의 보존과 새로운 발견을 위해 소장자료의 공개와 학계와의 공동연구에 힘쓸 예정이다.

- 붙임1. 학술대회 프로그램
 - 2. 작가대담 참여작가 프로필
 - 3. 학술대회 포스터 및 초청장 이미지
 - 4. 소장자료 사진

담당 부서	자료구축부	담당자	부장	서영인	02-6203-4063
-------	-------	-----	----	-----	--------------



붙임 1

학술대회 프로그램

□ 학술대회 취지

2024년 국립한국문학관과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공동개최하는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학”은 국립한국문학관이 수집한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하고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생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한국문학의 유산이 현대의 문화 콘텐츠에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소장한 대표자료인 『삼국유사(三國遺事)』(1512년, 국보 동일판본), 『담정총서(潭庭叢書)』(순조·철종연간, 유일본), 『임화정연기봉(林花鄭延奇逢)』(19세기 말, 유일본)의 문학사적 가치를 토론하고 이들 자료의 보존과 전승의 의미를 살핍니다. 2부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이 특화자료로 수집하고 있는 문인 육필원고의 서지적 사항 및 발굴의 문학사적 의미를 짚어 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문학의 전통적 가치는 물론이고 미래 유산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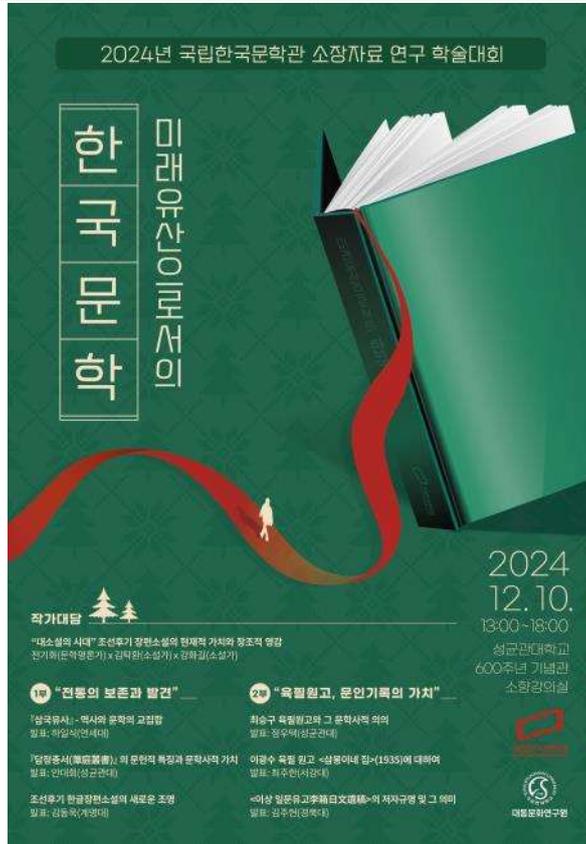
□ 학술대회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발표자(토론자)
인사말	13:00~ 13:20	• 환영사: 이영호(대동문화연구원 원장) • 개회사: 문정희(국립한국문학관 관장)	
작가대담	13:20~ 14:40	• “대소설의 시대”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현재적 가치와 창조적 영감 - 전기화(문학평론가)×김탁환(소설가)×강화길(소설가)	
	14:40~15:00	중간휴식	
<1부>	15:00~ 16:30	“전통의 보존과 발견” • 『삼국유사(三國遺事)』-역사와 문학의 교집합 • 『담정총서(潭庭叢書)』의 문헌적 특징과 문학사적 가치 •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새로운 조명 - 『임화정연기봉』을 중심으로	사회: 정병설(서울대) 발표: 하일식(연세대) 토론: 표정옥(숙명여대) 발표: 안대회(성균관대) 토론: 정우봉(고려대) 발표: 김동욱(계명대) 토론: 정혜경(강남대)
	16:30~16:50	중간휴식	
<2부>	16:50~ 18:00	“육필원고, 문인기록의 가치” • 최승구 육필원고와 그 문학사적 의의 • 이광수 육필 원고 <삼봉이네 집>(1935)에 대하여 • 조연현 기증 <이상 일문 유고李箱日文遺稿>의 저자규명 및 그 의미	사회: 유석환(대동문화연구원) 발표: 정우택(성균관대) 토론: 최현식(인하대) 발표: 최주한(서강대) 토론: 장문석(경희대) 발표: 김주현(경북대) 토론: 송민호(홍익대)

붙임 2

작가대담 참여자 프로필

성명	사진	약력
전기화		<p>2018년 『창작과 비평』에 평론을 발표하며 비평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평론으로 「끝내지 못한 시간을 꺼안는 법」, 논문으로 「고전소설콘텐츠 담론 검토와 그 비판적 계승에 관한 시론」 등이 있다.</p>
강화길		<p>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단편소설 「방」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다른 사람』, 『대불호텔의 유령』, 소설집 『괜찮은 사람』, 『화이트호스』, 『안진:세번의 봄』 등이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한겨레문학상, 단편 「음복」으로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동서양의 고전을 문학적 모티브로 활용하고 여성의 삶을 압박하는 사회적 공포를 '고딕 스타일러'의 스타일로 구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p>
김탁환		<p>1996년 첫 장편 『열두마리 고래의 사랑 이야기』를 펴내면서 소설가로 등단했다. '소설 조선왕조실록' 시리즈, '백탑파 시리즈' 등 고전에 바탕한 역사 추리 소설을 다수 창작했다. 『불멸의 이순신』, 『열녀문의 비밀』 등 다수의 작품이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거짓말이다』 등 사회참여적 문학 또한 작품 세계의 중요한 축이다. 최근작으로 『참 좋았더라』가 있다.</p>



학술대회 포스터

국립한글박물관

초대합니다

"미래유산으로서의 한국문화학"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희귀본 고전자료와 근현대 문인의 육필원고까지,
한국문화 대표 자료를 통해 전통의 향기와 한국문화의
미래가치를 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한국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송영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이영호**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00-13:20	환영사 이영호 대동문화연구원 원장
	개회사 문정희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13:20-14:40	작가대담 "대소설의 시대"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형태적 가치와 창조적 역량 전기희(문학영문기) × 김학원(소설가) × 김희일(소설가)
14:40-14:50	중간휴식
[1부] "전통의 보존과 발견" (사회: 정병성(시무대))	
14:50-15:20	주제발표1 『삼국유사』- 역사와 문학의 교집합 발표: 허일식(연세대), 토론: 표정욱(수명여대)
15:20-15:50	주제발표2 『담장총서(潭莊叢書)』의 문헌적 특징과 문학사적 가치 발표: 안대희(성균관대), 토론: 정우형(고려대)
15:50-16:20	주제발표3 조선 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새로운 조형-『임화정언기행』을 중심으로 발표: 김동욱(계명대), 토론: 정혜경(강남대)
16:20-16:30	중간휴식
[2부] "육필원고, 문인기록의 가치" (사회: 유세원(성균관대))	
16:30-17:00	주제발표4 최송구 육필원고와 그 문학사적 의미 발표: 정우택(성균관대), 토론: 최현식(인학대)
17:00-17:30	주제발표5 이광수 육필 원고 <상봉아내 집>(1935)에 대하여 발표: 최우현(서강대), 토론: 장문석(경희대)
17:30-18:00	주제발표6 조선전기중 <이상 일문유고李箱日文遺稿>의 저자규명 및 그 의미 발표: 김주현(경북대), 토론: 송민호(홍익대)

학술대회 초청장(내지)

붙임 4

소장자료 사진



일연, 『삼국유사』(중종 7년, 1512년) 완질 최고본



김려, 『담정총서』(19세기 초) 유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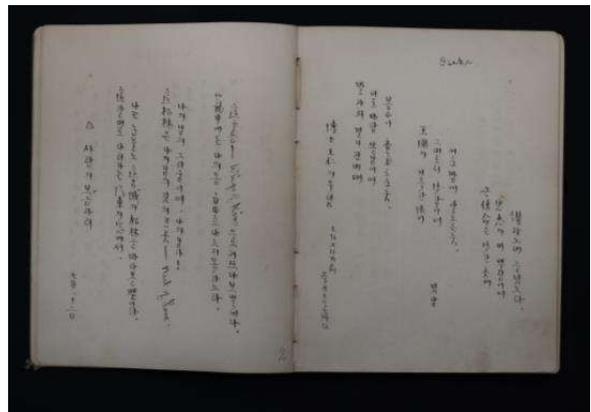
작자미상, 『임화정연기봉』(19세기), 총 72권, 유일본



이광수, 『삼봉이네 집』(1935년 추정), 친필 유일본



이상 일문유고(1930년대), 친필 유일본



최승구 창작노트(1910년대), 친필 유일본